

다음 레벨은 '블랙맘바와 싸우는 아이'

〈에스파 멤버들의 아바타 'ae'〉

첫 미니앨범 '새비지'로 레벨 업 아바타뿐 아니라 조력자도 등장 "메타버스 세계관 잇는 노래 재미"

"이전보다 '넥스트 레벨'해 돌아왔습니다."

4인조 걸그룹 에스파(카리나·윈터·지젤·닝닝)가 한층 더 강해진 면모로 돌아왔다. 지난해 11월 데뷔 이후 꾸준히 선보여온 강렬한 개성을 한 데 모은 첫 미니앨범 '새비지'(Savage)를 5일 내놓고 지난해 11월 데뷔곡 '블랙맘바'와 올해 5월 발표한 '넥스트 레벨'로 빠르게 그려온 상승곡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몹시 사납고 맹렬하다"는 의미의 앨범 제목에서부터 이들의 의지가 한껏 드러난다.

● '메타버스'의 세계로 날아간 독창성

에스파는 자신들의 차별화 전략으로 통하는 '세계관'을 점차 확장하면서 독특한 매력을 강조해왔다. 앞서 '블랙맘바'와 '넥스트 레벨'로 가상세계인 '광야'로 가는 여정을 담아냈다면, 이번에는 마침내 도착한 '광야'에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존재 '블랙맘바'와 맞서 싸우는 과정을 그린다. 타이틀곡 '새비지'와 수록곡 '아이너지'(aenerge)로는 이전 작품에서 선보인, 각 멤버들의 얼굴을 닮은 아바타 '아이'(ae)들뿐 아니라 조력자 '나이비스' 등 새로운 캐릭터도 소개한다.

"세계관을 이어가는 노래가 재미있게 다가갈 거예요. 우리가 신인임에도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은 아무도 하지 않았던

'메타버스'(현실세계에서처럼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가상세계) 세계관을 그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거대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 '강하고 쿨하면서도 서정적으로'

이를 위해 뮤직비디오에 화려한 CG(컴퓨터그래픽) 효과는 물론 애니메이션 기법까지 총동원했다. 귀에 딱 달라붙는 멜로디와 따라 하기 쉬운 안무도 공들여 준비했다. 이들은 "가수 태연과 키 등이 패러디한 '넥스트 레벨'의 '디근 춤'(디근 자로 팔을 굽혀 추는 안무)에 버금가는 춤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후렴구에 혀를 차는 소리를 따라한 '쯔쯔쯔쯔'라는 추임새를 반복해요. '안타깝다'는 마음을 드러낼 때 그렇게 혀를 차잖아요. 블랙맘바에게 '넌 우리에게 안 돼'라며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소리를 내면서 두 번째 손가락을 좌우로 흔드는 안무도 준비했습니다. 강하고 파워풀한 매력을 강조해 풀어냈죠."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는 그룹답게 "강하고 쿨한" 모습뿐 아니라 '자각몽' 등 수록곡을 통해 "서정적인 감성"도 다채롭게 뽐낸다는 의지이다. 이들은 "에스파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고 놀랄 것"이라며 웃었다.

"올해 11월17일이면 데뷔 1주년을 맞아요. 어색하기만 한 카메라에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무대도 점점 즐기는 게 느껴져요. 앞으로도 '역시 에스파'라는 감탄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색깔을 소화할 수 있는 그룹으로 성장해가겠습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4인조 걸그룹 에스파가 데뷔 이후 첫 피지컬(실물) 앨범인 '새비지'를 5일 내놓았다. 에스파의 멤버인 지젤, 카리나, 윈터, 닝닝.(왼쪽부터) 사진제공 | SM엔터테인먼트

연예뉴스 HOT 5

이상우·김소연 부부, 어린이재단에 1억 기부



이상우

김소연

연기자 이상우·김소연 부부가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더했다. 5일 김소연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이들 부부가 최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겨울철 취약계층 아동들의 난방비 지원과 학용품 구입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그룹 구구단 출신 가수 겸 연기자 김세정도 이날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00만원을 기부했다. OCN '경이로운 소문' 등에 출연한 그는 앞서 청소년 인식 개선 캠페인에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등 선행에 꾸준히 동참해왔다.

선미 '온라인 콘서트' 30일 전세계 생중계



선미

가수 선미가 2년 만에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한다. 5일 소속사인 어비스컴퍼니는 "30일 오후 2시 선미의 첫 온라인 콘서트 '굿 걸 Gone Mad'(GOOD GIRL GONE MAD)를 연다"면서 이를 전 세계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선미는 2019년 미국 LA와 샌프란시스코, 일본 도쿄 등 세계 18개 도시에서 월드투어 '워닝'을 펼친 바 있다. 그는 이번 콘서트에서 가상융합(XR) 기술을 결합한 무대 연출로 화려함을 더할 예정이다. 콘서트는 베누라이브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KBS 새 코미디 서바이벌 '개승자(들)' 확정

KBS가 새 코미디 서바이벌 프로그램 '개승자(들)'을 내놓는다. 5일 KBS는 공식 SNS를 통해 11월13일 '개승자(들)'을 방송한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지난달 시청자들로부터 공모 받은 제목 중 '개승자(들)'을 프로그램명으로 최종 확정해 이날 공개했다. '개승자(들)'이란 '개그계승자'와 '개그로 승부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프로그램은 팀을 이뤄 참가한 개그맨들이 각 라운드마다 시청자들의 투표로 승패를 겨루는 과정을 그린다. KBS가 '개그콘서트' 폐지 이후 1년 5개월 만에 내놓는 개그프로그램이기도 하다.

피원하모니, 美 SD '한국의 날' 행사 참여



피원하모니

그들 피원하모니(P1Harmony)가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한국의 날 행사에 케이팝 가수 대표로 참여한다. 5일(한국시간) 미국 LA한국문화원과 샌디에고 한국의 집은 공식 SNS를 통해 이들의 출연 소식을 알렸다. 피원하모니는 23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발보아공원에서 열리는 '코리아 데이 at 발보아 파크(Korea Day at Balboa Park)' 행사에서 케이팝 커버 댄스 심사과 축하공연을 할 예정이다. 26일 LA 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FC와 시애틀사운더스FC 경기에서도 무대를 선보인다.

'코리안 액티스 200' 오늘부터 해운대서 개최

한국의 배우 200명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 '코리안 액티스 200'이 부산에서도 관람객을 맞는다. 영화진흥위원회는 5일 "한국영화 배우 해외 홍보 캠페인 사진전 '코리안 액티스 200'을 6일부터 31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펼친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펼친 전시회에 이어 두 번째 무대이다. 이번 사진전에는 '그 배우가 여기 있다'는 주제로 윤여정, 이병헌, 류승룡, 문소리, 한예리 등 한국을 대표하는 200명의 배우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내걸린다.

지구촌은 지금 '오징어게임' 열풍

달고나 뽑기·'무궁화꽃이...' 놀이 등 각종 SNS 관련 영상 유행처럼 번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이 세계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극중 등장하는 각종 소품과 놀이가 온라인상에서도 새롭게 유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문화가 다소 낯선 해외 TV 시청자와 온라인 이용자들이 대거 흐름에 동참하면서 '오징어게임'의 글로벌 인기를 실감케 한다.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랫폼파트너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은 5일 현재 넷플릭스가 자체 플랫폼에서 순위를 집계하는 83개국 중 75개국에서 1위에 올라 있다. SNS 플랫폼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콘텐츠 1위와 3위를 각각 기록 중이다.

이 같은 인기로 힘입어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각종 SNS 플랫폼에서 '오징어게임'과 관련한 다양한 영상이 쏟아

지고 있다. 극중 미션으로 등장한 '달고나 뽑기'가 대표적이다. 해외 시청자들은 관련 조리법을 공개하면서 '달고나'를 만들다 실패한 모습 등을 영상에 담아 SNS 계정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코리아 허니콤 토피(honeycomb toffee)' 등으로 '달고나'를 지칭하며 아마존과 이베이 등 온라인 쇼핑물을 통해 '달고나 만들기 세트'를 고가에 구매하며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문을 연 '오징어게임' 체험관에서는 관련 체험을 하기 위해 몰려든 이들로 북적였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해외 팬들의 호기심을 이끌고 있다. 짧은 동영상상 공유하는 SNS 플랫폼 틱톡에서는 한국어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며 놀이를 하는 해외 이용자들의 영상이 많게는 120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신화에 맞춰 우스꽝스러운 자제나 고난이도 동작으로 멈춰서는 모습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도 하다.



'오징어게임'의 이장재는 극중 게임 '달고나 뽑기'에 도전하며 스릴을 자아낸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필리핀 시청자들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인형 앞에서 놀이하는 모습을 담은 틱톡 영상. 사진제공 | 넷플릭스·사진출처 | 틱톡 영상 캡처

극중 오일남(오영수) 캐릭터가 언급한 "간부"(같은 편)는 유행어 반열에 오를 조짐이다. 넷플릭스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5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한 장면과 함께 "KKANBU"라는 단어를 언급한 트윗을 올려 화제가 됐다.

영국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해외 언론매체들은 이처럼 온라인으로 번져간 '오징어게임'의 인기를 조명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오징어게임'으로 인해 '달고나 뽑기'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데일리메일은 "#squidgame"(오징어게임) 해시태그를 단 영상이 총 256억부를 넘긴 틱톡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박지운 미국 LA 통신원은 "오징어게임"이 "사이의 '강남스타일'과 그룹 방탄소년단, 영화 '기생충'의 신드롬에 이어 한류의 새 역사를 쓴 콘텐츠로 기억될 것"이라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정호연, 韓배우 인스타 팔로어 1위...이정재, 개설 3일 만에 160만

박해수·위하준 등과 '지미 팰린쇼' 출연

'오징어게임'의 전 세계적 인기로 힘입어 그 주역들에게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오징어게임'이 공개된 이후 이들의 SNS 팔로어가 크게 늘어나는 등 국내외 팬들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다.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연기자들은 단연 정호연이다. 이미 모델 활동으로 해외에서도 제법 이름과 얼굴이 알려졌지만, '오징어게임'을 통해 명성을 더욱 탄탄히 굳히고 있다.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어수가 이를 증명한다.

5일 정호연의 인스타그램 팔로어는



정호연

9월17일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을 공개하기 전 팔로어가 40만명대였다는 점에서 정호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엿보게 한다. 모델 출신다운 다양한 패션 화보와 관련 영상으로 '오징어게임' 속 10대 세터민

1330만명을 넘어섰다. 이로써 연기자 이성경(1290만명)과 송혜교(1200만명)를 제치고 한국 연기자로서는 가장 많은 인스타그램 팔로어를 보유하게 됐다.

소녀와는 또 다른 이미지를 발산하며 전 세계 누리꾼의 시선을 끌어들이고 있다. 주연 이정재도 최근 SNS의 문을 열고 팔로어를 빠르게 늘려가는 재미에 푹 빠졌다. 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을 만나기 시작한 그는 3일 만인 5일 160만명의 팔로어를 끌어들었다. 이날도 "해브 어 나이스 데이(Have a nice day)~♥"라는 글과 함께 갈색 선글라스를 끼고 환하게 미소 짓는 자신의 모습을 올린 그는 뒤늦게나마 활발한 SNS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징어게임'의 또 다른 주역들도 마찬가지로

가진다. 조연 김주령은 138만여명으로 '오징어게임' 공개 이후 무려 1600배나 팔로어가 늘어났다. 박해수는 100만 팔로어를 눈앞에 뒀으며, 정호연과 함께 보는 이의 눈시울을 자극한 이유미도 466만여명, 허성태는 113만여명의 팔로어 등으로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한편 이정재와 박해수, 정호연과 위하준은 7일 미국 NBC 인기 토크쇼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린'에 출연한다. 이미 5일 온라인 화상을 통해 녹화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